

보도해명자료

(‘13. 7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 11기 추가건설 축소 가능성” (‘13.7.30, 서울)

1. 기사내용

- 2024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비중을 현행 30%에서 59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이와 관련 윤 장관은 “원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”며 원전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11기의 원전 추가건설 축소 가능성은 사실이 아님
 -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‘10.12월)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‘13.2월)에 따라 결정된 ‘24년까지의 원전 11기 추가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됨
 - * 과거 원전비중을 30%에서 59%로 확대한다는 것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라,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(‘08.8월) 상 ‘24년이 아닌 ‘30년까지의 발전량 기준임
- 다만, 금년 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경제성과 함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‘25년 이후의 원전비중 등을 결정할 예정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(02-2110-5481)